



오늘의 날씨 | 맑음 | 22℃/34℃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음력 6월 16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1091호



퀴어축제 열린 서울광장 반대편, ‘세레자 요한’의 함성소리 들려

2018 동성애퀴어 축제반대국민대회 개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14일 오후 1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퀴어축제 반론을 게재하라’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번 국민대회는 홍호수 목사가 사회를, 연세중앙교회 초등부 위신팀이 문화공연을, 동성애퀴어축제반대대회장 겸 예상통합 최기화 총회장이 대회사를, 예상합동 중경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선규 목사는 격려사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받게 되었으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세례요한은 사회의 죄악을 지적했고 잘못된 점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죄악인 동성애를 책망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사회악이 더 이상 뿌리 내려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동성애를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허용하는 것은 해롯의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며 “주님은 진리 편에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와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2007년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노력했던 에스더기 도운동본부 대표 겸 공동대회장인 이용희 교수가 인사말씀을 전했다. 그는 “서울광장 동성에 반대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러나 퀴어 축제가 서울시 광장위원회의 허락을 받았기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데 문제없다”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었는가”라며 “작년에 낙태법 폐지에 23만 명의 국민이 청원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 개최에 시민들의

6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광장에서 음란공연을 하고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퀴어 축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9%나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음란성이 상존해온 퀴어 축제의 선정적 퍼포먼스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고 공익적이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용함으로써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 동성애자들의 건전한 인권운동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탈행위인 동성간 성행위 보호를 위해 동성에 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공식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퀴어 반대축제국민대회 참가자 전원이 성명서를 냈다. 대신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그는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 판매하고, 음란한 행위로 법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퀴어 축제를 규탄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퀴어축제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나아가 동성에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령에 어긋난 처사를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국가의 대사관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 동성결혼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일반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문란한 성적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20개 대사관은 퀴어축제부스에서 철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퀴어 축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대사관, 유럽연합대사부, 프랑스, 독일대사관이 공식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와 공익 행사를 위한 서울광장에서 선정

적인 음란 공연과 물건을 전시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조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퀴어 축제 주최 측을 강력 규탄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동성의 심각한 보건적 유해성과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큰 원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동성애를 추가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대회의 2부 순서가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됐다. 여성 부총회장 문정민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모든 참석자가 불렀고, 합심 총회 부총회장 백성호 장로가 대표기도를, 둘레 사모 합창단이 특별 찬양을, 한기총 총무협회장 김경만 목사가 로마서 1:26-27절을 봉독했다.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그는 “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순리이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음욕에 불일듯 남자를 취하는 것은 역리”라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자인 그들을 우리는 사람으로 품어 줘야 하지만, 동성에 자체는 죄이고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열왕기상 14:24에 ‘그 땅에 또 남색 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와 열왕기상 22:46절의 ‘그(여호사밧)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 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 내었더라’를 인용하며 “동성애는 사회에 절대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 나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명한 윤리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엄기호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치유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되문으며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정죄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자”면서 “동성애자들이 더 이

상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 살지 않고, 스스로 뉘우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이겨냄과 동시에 믿음과 말씀 총만으로 동성애를 이겨내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받을 때 까지 기도로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린다”며 “금욕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이 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이 땅에 동성애가 점점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당부하며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 설교 이후 집회 참석자 전원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째로 동성애조장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두 번째로 나라와 정치지도자를 위해,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 네 번째로 건강한 가정과 생명존중을 위해 참석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윤리 정착을 염원하며 20분가량 합심 기도했다.

이어 한기연 중경대회회장 조일래 목사가 축도를 했고, 곧바로 구호제창의 시간을 가졌다. 구호 제창에는 광주동성애 대책시민연대 정미경 사무총장, 전북기독교포럼 임채영 대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하나 대표,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이화영 사무국장, 충북교육시민사회 단체인협의회 이재주 상임대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미경 대표,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김길수 대외사무총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영춘 본부장,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경남연합사무국장 자정화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공동사무총장 김진호 목사가 퍼레이드 행사를 위한 광고를 전하며 제 2부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됐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15시부터 17시 까지 대한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돌아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퍼레이드를 진행 했으며, 다만 국민대회 반대편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진행 측과 별다른 충돌 없이 행진했다. 이어 4부 문화축제가 17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면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노형구 기자

퀴어축제 vs 반대집회

14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가운데(오른쪽), 대한문 앞에서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왼쪽)가 열렸다. 국민대회 측은 약 6만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북·중 단속에 탈북민 감소 우려”

탈북민이 크게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스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3일 “탈북민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가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갇힌 탈북민 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88명으로 작년보다 100명 이상 줄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도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9명을 기록한 뒤 2017 회계연도에 1명, 올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가들은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로 북·중 국경의 경비와 북한 정권의 처벌 강화,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등을 지적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중국 갈릴산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서 복숭된 탈북민들은 대개 3~5년,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는 최근에 한 탈북민이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류 사무총장도 “탈북민에 대한 감정은 정권의 처벌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은 목사 등 탈북민을 돕는 복수의 관계자는

“북한 보위 당국이 휴대전화를 감청한 뒤 나중에 일괄적으로 체포하는 등 단속도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스 부국장은 “이 때문에 지난 1~2년 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강비가 2~3배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북 중개인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가는 비용은 현재

적어도 2~3만 달러로 올랐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노스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등 미국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탈북 난민의 입국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무부가 최근 갇힌 보고서 보면 올 상반기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만 5천 명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입국한 전체 난민은 1만 6천 230명에 불과했다.

스칼라류 사무총장은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뒤 지금까지 수용한 탈북민이 215명이란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더 많은 북한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가족이 미국에 없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적어도 1~2년 이상을 난민 신청을 한 국가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탈북민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행을 선호해 왔다.

미 전문가들도 “이런 한국의 감정에 동의하면서도 탈북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정착지를 선택하고 북한의 잔인한 상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를 더 많이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이 북한인들의 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스 부국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등 북한 인권에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평양뉴스

‘억울한 옥살이’ 백영모 선교사 석방 청원 기각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힌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처리 됐다. 백 선교사 석방을 위한 청와대 청원자는 약 18만 명이 됐다.

백 선교사는 지난 7월 11일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감되기 직전에 백선교사석방대책위에서 면회를 했는데, 백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다.

백 선교사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신다는 말씀듣고 힘을 낸다”며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음에도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또 백 선교사는 “성도님들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가서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야기도 간증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울먹이며 재차 기도를 부탁했다.

앞으로 백 선교사는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필리핀의 유명 로펌을 통해 백 선교사의 석방에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다. 우선, 재판에 앞서 재심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재심의 결과는 한 달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성도들의 더 큰 기도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백 선교사의 아내 배 모 선교사가 올린 청와대 청원자 숫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사모 배 선교사는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이곳(필리핀 안티폴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가서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야기도 간증

홍은혜 기자

대학 지성들도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한다”

‘트루스포럼’ 전국 대학 연합,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 젊은 지성들의 모임인 ‘트루스포럼’ 전국 대학 연합이 13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트루스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퀴어행사에서는 보편타당한 성윤리를 해치는 외설적인 공연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퀴어행사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고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 다시 시청광장을 내어준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 총학생회가 퀴어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대학 모든 학생을 대표할만한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독단적인 참가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건전한 성윤리를 해치는 퀴어행사에 대해 불결한 마음을 갖고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은 많은 대학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트루스포럼은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도덕적 평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함으로써라도 매도하고 탈동성애자, 반동성애 운동가의 학내강연을 방해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진행한 탈동성애자 특강은 장소사용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도 밝히고,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가져와서 동성애에 대한 다른 견해는 무조건적인 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무시한 채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무지한 민중으로 매도하는 것은 독선이며, 새로운 형태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인권/성평등교육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성평등 교육안을 개발하고 많은 대학에 보급했다”며 “하지만 동 교육안은 수십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권센터는 현재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인권센터의 인권/성평등교육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양심과 학문적,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의 교육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강



‘트루스포럼’ 전국 대학 연합이 13일 낮 국회정론관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GMW

요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젠더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전파하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관향적인 인권/성평등 교육안은 반드시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개최되는 서울광장 퀴어행사, 각 대학 총학생회의 설부터 참여, 동성애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는 일방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트루스포럼 연합회에는 서울대

트루스포럼/ 고려대 트루스포럼/ 연세대 트루스포럼 / 숙명여대 트루스포럼 / 총신대 트루스포럼 / 한국외대 트루스포럼 / 인하대 트루스포럼 / 카이스트 트루스포럼 / 안양대 트루스포럼 / 이화여대 트루스포럼 / 한동대 트루스포럼 / 한양대 트루스포럼 / 홍익대 트루스포럼 / KC대 트루스포럼 / 경희대 트루스포럼 / 대전과기대 트루스포럼 / 부산대 트루스포럼 / 서강대 트루스포럼 / 세종대 트루스포럼 등이 함께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시민사회단체들, 서울시청 광장 퀴어축제 허가한 박원순 고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의 2개 단체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드러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 형사법률위반과 더불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여성차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의 판매, 일반인에게 혐

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고 지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8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 전했다.

한편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동반연과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다. 210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서울 중심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박용국 기자

한국교육자선교회 홍천지역회, 제1회 기독교동아리 연합예배



제1회 홍천지역 기독교동아리연합예배를 마치고,

한국교육자선교회 홍천지역회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홍천지역회는 지난 7월 14일 홍천중앙교회(담임 이민수 목사)에서 제1회 2018 홍천지역 기독교동아리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연합예배에는 홍천고, 홍천여고, 홍천중, 홍천여중, 양덕중, 흠씨흠스쿨, 해밀학교, 남산초, 명덕초 기독교동아리 학생들이 41명과 지역회 회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원지방회 김경로 이사장과 서기성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홍천여자고등학교와 해밀학교 학생들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이민수 담임 목사가 ‘네 종류의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2부 순서로는 남산초등학교 컴에서 어린이들의 축하공연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나누는 간증 시간을 가졌다.

홍천여고 이정현 학생은 “나는 놀리고, 염려 가운데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공부

도 기쁘게 하게 되고 성격도 밝아졌다.”는 간증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했다.

이민수 목사는 “홍천지역에 기독교동아리들이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천고등학교 이미희 기독교동아리 지도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등학교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였다.

강원지방회 김경로 이사장은 “지역 교회의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하고, 학교 내 신앙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볼 때, 학교 내 기독교동아리들이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모임의 의미를 밝혔다.

홍은혜 기자

분당중앙교회, LH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NO”

교인 수 천여 명‘반대의견서’市에 제출 예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현 목사)는 최근 교회 최고사결정기구인 당회를 긴급 소집, 성남시보에 게재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성남시 공고 제2018-1099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교회재산 소유자(교인 總有) 의견을 성남시장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분당중앙교회 당회는 이날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강력 저지하고 이에 반대하며 민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서를 교인 수 천여명이 작성, 7월 20

일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회 당회는 “이 같은 결의가 분당중앙교회 ‘교회운영정관’ 제11장(재산)제79조(재산권)2호, ‘교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제1,2항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하며, 교회의 재산은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교인들의 總有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서현동 일대의 분당중앙교회 부지 6천여평은 그 주인이 교인들로 이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당회는 또, 교회내에 ‘공영개발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

다.

분당중앙교회 이승배 장로(당회 서기)는 “서현동 일대에서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교회는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시로부터 부과된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 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본연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영개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기부하여 이 대학들과 협력

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교회는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 1월 수도권 일대에서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시행사와 ‘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전문시행사인 (주)일우성엔지니어링 전무 현석원 장로는 “분당중앙교회와 시사영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토지주들이 서현동 일원의 민영개발사업에 대해 한 마음으로 의지를 모으고 있다”면서,

“현재 민영개발지정 제안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주들의 ‘지구지정 동의서’가 확보되는 즉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모바일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월드비전 후원금 사용지침

- 월드비전 Handy Card와 함께 후원금으로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연도를 기록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이웃이 사는 지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연락처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후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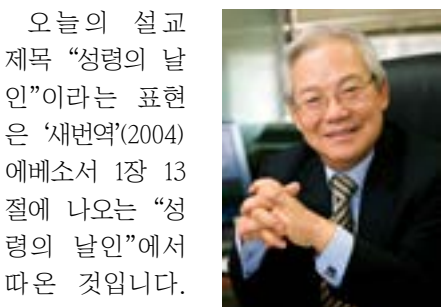
후원금용 후원서 받기

- 월 30만원의 후원금은 지역별사업자를 통해 아동이 필요한 드레싱, 의복, 교육 및 미술에 사용됩니다.
- 지역별사업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키우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성령(聖靈)의 날인(捺印)

엡 1:3-14; 삼하 6:1-5, 12-19; 막 6:14-29 ‘함께하는예배’ 공동체 민영진 박사 설교



‘함께하는예배’ 공동체 공동설교자 민영진 박사

오늘의 설교 제목 “성령의 날인”이라는 표현은 ‘새번역’(2004)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날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누를 날(捺)” 혹은 “찍을 날(捺)” 자에 도장 “인(印)” 자가 합쳐져서 형성된 날 말 “날인(捺印)”은 도장을 찍는 행위, 혹은 그 결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만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낙인(烙印)”이란 날말도 있습니다. “지질 낙(烙)” 자에 “도장 인”이 합쳐져서 형성된 말입니다. 명사 낙인 (烙印)은 “불에 달구어 찍는 쇠도장” 곧 “화인(火印)”을 일컫기도 하고, “씻기 어려운 불명예(不名譽)스러운 관점이나 평가”를 일컫기도 합니다. 날인과 낙인은 둘 다 도장을 찍는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뜻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새번역’에 “(성령의) 날인을 받다”라고 번역된 것이 ‘구약’(1911)이나 ‘개역’(1938, 1961)이나 ‘개정’(1998)에서는 “(성령으로) 인(印) 침을 받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성령의 도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낙인”이 형벌이나 불명예에 관련된 말인데 반해, “인(印)침”은 인정과 명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은 친다는 이 말은 본래 귀중한 문서에 작성자가 확인 도장을 찍는 행위나, 귀중한 기록물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밀봉한 다음에 수신자 이외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밀봉한 부분에 인장반지”인을 친 밀랍”을 붙이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성령의 날인” “성령의 인 치심”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고 은유(隱喩)입니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우리에게 “성령”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날인” “성령의 인 침”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오늘의 성서일과 중 에베소서 1장 3-14절의 진술 내용과 전체 문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본래 3절부터 14절까지 12개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들은 이 긴 한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새번역’은 14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합니다. 그리고 3-14절은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매 부분마다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엡 1:3a)고 권면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문동그러서 말합니다(엡 1:3b). 이 초청에 이어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까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상기시킵니다.

첫 부분 4-6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부(聖父) 하나님임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 7-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자(聖子)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모시고 살도록 이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 13-14절에서는, 성령(聖靈)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가 받을 상속(相續)의 담보(擔保)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받을 상속을 성령께서 보증(保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4절의 진술 속에 있는 “창조 이전”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낯섭니다. 그러나 잠언 8장에서도 우리는 창조 이전에 관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화(擬人化)된 지혜(智慧 호크마)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23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24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25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26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30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創造)의 명공(名工)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잠 8:22-26, 30-31)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아득한 그 옛날에, 땅도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데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려고 지혜를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고, 실제로 지혜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듯이(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 구실을 했다는 진술을 개역 잠8: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저자는 진술합니다(엡 1:4).

이어서 5절에서 에베소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것도 이미 창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곧 신자가 상속권을 가진 입양된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날말과 표현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아드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예가페메노) 아들”이라고 밖에 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스어 ‘예가페메노’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특수 친밀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드님” (“only beloved”, “His dearly loved Son”)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NET).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문자대로는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7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아드님의 피로 구속(救贖) 곧 죄 용서(宥恕)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는 문자대로는 “그분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일수도 있고 아드

닐 수도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KJV)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8-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神秘)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신비”는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의 번역입니다. 미리 나타나지 않았던 신성한 비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은 “게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統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統一)시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어 ‘아나케팔라이오스타이’를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NET 해설 엡 1:10)

첫째, “통합된다”(sum up, unite)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금지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모든 계명은 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이 한 마디 말씀으로 통합된다고 할 때 사용되는 “통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아나케팔라이오스타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 될 것이다”(ASV, ERV, ESV).

둘째, “새로워진다”(renew, renovate, reestablish)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에서 땅에서 죄와 파괴의 상태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상태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아나케팔라이오스타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ETH: Etheridge Translation of the NT Peshitta, 1849)

셋째, “우두머리가 되신다”(head up)는 뜻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교회를 포함하여) 위에 “머리”로 군림(君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번역’과 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새번역’, 1993/2004 엡 1:10)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는 헤로디아 대로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일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딸과 모의하여 요한을 참수하게 합니다(막 6:17-29). 그러나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면,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 면, 세례요한의 죽음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알라의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법궤,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예병 3만 명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백성의 마음이 다윗 성으로 향하게 하려면 계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행사를 하면서 궤를 옮기던 도중에 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흔들렸고, 옷사는 그 궤를 꼭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의 불순한 의도를 벌하신 걸까요?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면 계획은 취소되고, 궤는 가드 사 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기도록 조치합니다. 석달 동안 궤는 오벧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궤를 집에 보관한 오벧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그 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합니다. 다윗은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은 환호하고, 다윗은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20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

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뽐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 주셨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뭈 것이요, 22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23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삼하 6:20-23)

그러나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면,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이 되면, 권력가의 종교 이용과 왕가의 세력 다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讚美)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월간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